

졸업 연설

전준영

안녕하세요? 저는 8 학년, 전준영입니다.

저는 사랑한국학교를 10 년동안 다녔습니다.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. 민희, 형윤이, 준섭이, 정운이, 지연이, 연웅이와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.

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한국어와 한국역사,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.

매주 토요일마다 잠도 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학교를 가야했고, 미국학교 친구들보다 숙제와 책임이 더 많은 게 싫었습니다.

하지만 이 졸업식까지 오게 되니까 큰 보람이 느껴집니다.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 저를 가르쳐주시고 좋게 받아주신 선생님들, 교감 선생님, 교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저를 한국학교로 보내주신 엄마와 아빠께 감사드립니다.

한국학교는 저의 인생의 큰 복이였고 여러가지의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. 저를 도와주시고, 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저에게 축복입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

2016년 6월 11일